

손흥민·살라 '상암벌 진검승부'

내달 14일 한국·이집트 국가대표팀 평가전
EPL 득점왕끼리 자존심 건 승부 흥미진진
17년 만의 대결... 양팀 역대 전적 5승7무5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토트넘)과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A매치에서 다시 한 번 골잡이 대결을 펼친다.

6월 A매치 4연전을 앞둔 벤투호의 마지막 네 번째 상대로 이집트가 낙점됐다.

26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6월14일 이집트와 A매치 평가전을 치를 게 유력하다.

양국이 평가전을 치르는 데 합의하고, 사실상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거의 확정적이다. 최근 이집트 언론들도 6월 한국과 A매치가 성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벤투호는 다음 달 2일과 6일 각각 브라질(서울월드컵경기장), 칠레(대전월드컵경기장)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 뒤, 10일 우루과이(수원월드컵경기장)를 상대하고, 이집트전으로 4연전을 마치게 됐다.

이집트와의 경기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릴 게 유력하다.

세계 최강 브라질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축구 팬들을 흥분하게 할 빅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이집트를 대표하는 공격수 손흥민과 살라의 대결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둘은 2021~2022시즌 EPL에서 나란히 23골을 터뜨리며 공동으로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특히 최종전에서 손흥민이 2골, 살라가 1골을 터뜨리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최고 골잡이 경쟁을 펼쳤다.

이집트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29위)보다 세 계단 아래, 32위다.

역대 전적은 5승7무5패로 팽팽하다. 마지막 대결은 2005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평가전으로 한국이 0-1로 졌다.

17년 만에 성사된 A매치로 시간이 많이 흘러 상대 전적은 큰 의미가 없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 11월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다.

손흥민이 지난 24일 귀국한 가운데 벤투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손흥민이 코너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호는 오는 30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모인다.

한편, 한국은 당초 4연전의 마지막 상대

로 아르헨티나를 원했지만 아르헨티나 측 사정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범죄도시2' 코로나 후 한국영화 최고치

450만명 관객 돌파... '다만 악에서' 435만명 기록 넘어서

영화 '범죄도시2'가 450만 관객을 넘어

서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범죄도시2'는 전날 34만2308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 451만3334명을 기록 중이다. 이 수치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고치다. '범죄도시2'에 앞서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은 2020년 8월에 개봉해 435만명이 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였다.

이 흥행 추세로 보면 '범죄도시2'는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개봉 영화 최고 흥행 기록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록은 지난해 12월에 나온 '스파이더맨: 웨이 홈'의 755만명이다. '범죄도시2'는 2017년 개봉

해 688만명이 본 '범죄도시'의 후속작이다. 형사 '마석도'가 베트남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자수한 범죄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현지에서 갖다가 그곳에서 무자비한 악행을 벌이는 '강해상'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마동석이 전작에 이어 마석도를 연기했고, 손석구가 강해상을 맡았다. 연출은 전작 조연출 출신인 이상용 감독이 했다. 이 감독은 '범죄도시2'가 데뷔작이다.

한편 25일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다터 스트레인저:대혼돈의 멀티버스'(3만3032명·556만명), 3위 '그대가 조국'(2만4455명·첫 진입), 4위 '안녕하세요'(2728명·첫 진입), 5위 '피는 돌보다 진하다'(1679명·첫 진입) 순이었다.



영화 '범죄도시2'.

뉴스시스

서인국·오연서, 아슬한 상극 케미

KBS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
6월 27일 '미남당' 첫 방송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 KBS2TV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 측은 26일 서인국과 오연서가 예측을 불허하는 미스 매치를 선보인 스틸을 공개했다.

6월 27일 첫 방송을 확정 지은 '미남당'은 전직 프로파일러이자 현직 박수무당의 최총우돌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 서인국은 극 중 미워할 수 없는 '능구렁이' 매력과 트렌디한 패션 센스를 겸비한 박수무당 '남한준'으로 분한다.

오연서가 연기하는 '한재희'는 정의 구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강력단 형사로, 물귀신 같은 수사력 때문에 '한귀(寒鬼)'라는 닉네임으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성격도 직업도 다른 두 사

람은 일련의 사건을 바탕으로 인연을 맺고 아슬아슬한 상극 케미스트리를 뽐낸다. 공개된 스틸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한 서인국과 오연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서인국은 오연서를 향해 손가락을 치켜세운 채 무언가를 따지고 있고, 오연서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매섭게 맞서며 심상치 않은 인연의 서막을 알린다.

샌디에이고 빈공에도 김하성 2경기 연속 안타



밀워키와 홈경기서 4타수 1안타... 샌디에이고는 1-2 패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겨우 5안타만 기록하는 빈공에도 김하성은 2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 냈다.

김하성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 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즈와의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유격수 겸 7번 타자로 나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김하성의 타율은

0.220으로 유지됐다.

김하성은 2회말 첫 타석부터 1사 1, 2루의 타점 기회를 잡았지만 유격수 앞 땅볼에 그쳤다. 2루 주자 윌 마이어스가 3루까지 나가 김하성 자신도 1루를 밟았지만 1루 주자 루크 보이트가 2루에서 아웃됐다. 김하성은 4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나선 두 번째 타석에서도 유격수 앞 땅볼에 그쳤다.

김하성은 팀이 1-0으로 앞선 6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나선 세 번째 타석에서 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도 좌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때려 내

며 상대 선발투수 애런 애쉬비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김하성은 팀이 1-2로 뒤진 9회말 첫 타자로 나와 먼저 2스트라이크를 내주고도 3개의 볼을 골라 내는 집중력으로 풀카운트까지 갔지만 좌익수 플라이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5회말에 먼저 점수를 뽑고도 7회초에 2점을 내주며 1-2로 역전패했다. 샌디에이고 선발투수 다르빗슈 유는 7개의 삼진을 잡아 내는 뛰어난 호투를 펼쳤지만 7회초 1사 1, 3루 위기에서 라우디 텔레스에게 동점 2루타를 내준 뒤 타이론 테일러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2실점, 패전 투수가 됐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